

익명화 과정중인 그리스도인 어떻게!

예인교회 목사 정성규

1. 교회를 찾거나, 떠나거나, 배척하는 사람들

1) 교회를 찾는 사람들

부천 중, 상동 신도시에서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신도' 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중동에 있는 한 교회의 경우 한해 200명 이상이 등록(종교부지에 건축한 대부분의 교회가 한해 2-300명의 등록자가 있다)한다. 그러나 등록한 200명중 상당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착하지 못하고 새로운 교회를 찾아 떠난다. 신도시 교회들은 유입되는 신도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인원성장을 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한 두 교회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 상동 신도시 종교부지에 건축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겪고 있다는 것이다.

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가? 이들이 찾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2)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 수가 1천 200만 명이라고 알려진 때가 있었다. 수치상으로 보면 전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장 될 때도 있었다. 그러나 2006년 5월 정부(통계청)가 발표한 주택-인구총조사 결과를 보면 기독교인은 861만 6천명으로 나타났다. 정부 통계상으로는 10년 전 보다 1.6% 감소한 것이지만, 그동안 기독교의 주장과 비교할 때 338만 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이에 비해 가톨릭 신자는 10년 전에 비해 74.4% 증가한 514만 6천명으로 응답됐고, 불교 신자는 3.9% 늘어난 1천 72만 6천명이었다. 즉 교회를 떠난 신자들 중이 상당수가 가톨릭과 불교로 갔음을 의미한다.

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가? 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

3) 교회를 배척하는 사람들

최근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하였다. 대한민국 전국에 사는 19세 이상 남, 여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했는데 기독교를 매우 신뢰한다는 18.4%, 보통 신뢰한다는 33.3%, 신뢰하지 않는다는 48.3%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교 기관의 신뢰도를 보면 가톨릭교회가 35.2%, 불교가 31.3%이고 기독교는 18.0%이다. 기독교는 총체적으로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증명해주는 것 중에 하나의 현상이 기독교 안티세력의 등장과 활동이다. 기독교를 '개독교'로, 목사는 '먹사'로 표현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척, 박멸하려 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은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기독교에 몸담고 그 중심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기독교의 문제를 체험했고, 최근에 집단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왜 교회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가? 이들이 교회를 배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를 찾거나, 떠나거나, 배척하는 유형의 그리스도인을 예인교회에서는 '익명(화 과정)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본래 익명(匿名)이란 '이름을 숨기는 것'을 말한다. 선한 일을 하고 자신의 이름을 숨기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익명이다. 그러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스스로 숨기거나, 교회를 떠남으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나쁜 의미에서 익명이다.

이들은 무엇을 부끄러워하는가?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설교와 가르침, 불투명한 운영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교회는 목회자의 제왕적 굴림과 교회 권력의 전횡이 횡행하기 마련이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만인제사장이어야 교회가 기형적 성장과 그로 인해 이득을 얻는 자들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조금의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한 번이라도 목회자 또는 교회 권력과 충돌한 경험이 있는 신자의 경우, 대부분 그 교회에서 더 이상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3. 대안

그렇다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회의 대안은 무엇인가?

1) 바른 성경 해석과 가르침이 필요하다.

우선 교회성장 학파의 영향을 받은 성경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 그들은 교회당을 성전이라도 우김으로 교회 건물에 대한 비정상적인 이미지를 심어 놓았다. 이러한 경우, 우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하며, 그 내용이 설교와 성경공부를 통해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전달됨으로 교회 내에 상존하는 각종 비정상적인 이미지를 거둬내야 한다.

2) 투명한 교회 운영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회의 투명성은 신자 모두가 만인제사장이라는 신학에서 출발한다. 모든 신자는 만인제사장으로 누가 누구의 위에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성경 정신에 벗어나지 않는 약속이 필요하게 된다. 그것이 정관(규약)이다. 정관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합의 한 것으로 모든 신자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 정관을 만드는 것은 모든 구성원이 지키기 위함이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약속을 지킨다면 투명성은 보장될 것이다.

3) 교회성장주의를 버려야 한다.

교회성장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장은 한국교회 내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회성장만 이룬다면 그 어떤 잘못을 행해도 용서된다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지 성장 자체를 목적으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

4. 결론

한국교회는 최근 내외부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 도전을 우리는 사탄의 획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에 무너뜨리지 않고 채찍을 드신 것이다. 이 기회를 선용해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만인제사장의 신학을 바로 적용하며, 모든 신자들이 참여하는 투명한 운영을 하므로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세워야 할 것이다. 이 일에 뛰어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회규약/정관 운영

- 규약/정관의 의미

- ✓ 규약(規約): 조직체 안에서, 서로 지키도록 협의하여 정하여 놓은 규칙
- ✓ 정관(定款): <법률>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

- 교회의 경우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협의 과정을 통해 정한 규칙이라는 점에서 규약이라는 표현이 어울리고, 법정에서 교회 내 분쟁 문제를 다룰 때 교단총회헌법보다도 개 교회 규칙에 우선권을 둔다는 점에서 법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관이라 부르는 것도 의미가 있음.

- 본 글에선 편의상 규약으로 통일하겠음.

- 건강한 교회를 위한 규약을 채택하는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일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특정 소수의 인치(人治)를 극복하고 법치(法治)를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

- 그러나 규약 채택 자체만으로 건강한 교회 운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중요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I. 교회정치에 대한 기본적 이해

- ❖ 교회에도 정치가 과연 필요한가?

- ❖ 정치의 가장 일반적 의미: '일군(一群)의 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 정치는 권위와 권력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들로 구성됨.¹⁾

- ❖ 교회정치에 담긴 정치의 의미:

국가만으로 한정되는 인간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생활의 제(諸)형태, 이를테면 회사·노동조합·교회·학교·가정 등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의견의 차이를 조정해 나가는 통제의 작용도 모두 포함함. 즉 국가의 경우 공적인 정치(government), 그 밖의 경우엔 사적인 정치라고 볼 수 있음.²⁾

-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펼쳐가야 하기 때문에, 정치는 필연적인 교회활동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음. 사도행전과 서신들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정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eg. 7명의 새로운 일군을 선정함(행 6:1-6)

- 교회정치의 의미: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펼쳐 가는 과정에서 1) 필요한 일꾼을 선정하고 권위를 배분하고 감독하며, 2) 교회의 제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함으로써 효율적인 질서와 정의로운 평화를 유지하는 모든 행위

II. 민주주의에 대한 바른 이해³⁾

- '교회는 민주주의를 채택하면 안 되고 신본주의/신정정치를 택해야 한다?'

교회는 공화적으로 통치자를 뽑는 곳이 아니며,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대의정치를 하는 곳도 아니다. 교회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다. 만일 교회가 민주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성경도 다

1) 'Politics' in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Politics>).

2) '정치',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137036>).

3) 백종국,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 (뉴스앤조이, 2003), 55-60.

시 쓰게 되고 하나님도 다시 뽑게 된다.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들기 좋아하는 본성을 지녔기 때문이다.⁴⁾

1) 신본주의/신정정치에 대한 바른 이해

- 신정정치(theocracy): 신의 대리인을 통한 신의 직접적인 통치

-신정정치의 전제:

- ① 신의 직접적인 계시의 존재
- ② 신의 계시를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의 존재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 신정기간이 있었음: 출애굽기, 사사기

- 신약교회에 신정정치가 불가능한 이유

- ① 교회의 모든 정치적 행위(직원의 선출, 재정의 출납, 회의 소집과 권징 등)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가 없음. 신약교회에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일반계시 포함).

하나님께는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주시던 과거의 방식을 이제는 중단하셨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항).

- ② 개혁교회는 목사만이 성경해석의 유일한 권위자라고 주장하지 않음.

우리는 그들의 시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시대에 있었던 실례들을 통하여 경고 받는 바, 즉 그것은 진리는 언제나 목회자들의 품안에서 양육되는 것은 아니며, 교회의 완전은 그들의 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⁵⁾

- 신정정치의 대조어는 민주정이 아니라 세속정치
- 교회는 신정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속정치 중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택해야 함.
- 그럼에도 신정정치를 고집하는 이유: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사제주의에 대한 유혹. 즉 사제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하여 교회를 권위주의적으로 다스리려고 함.

2) 세속정치체제의 분류: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

- ① 왕정(한 명에 의한 통치): 타락하면 폭군정
- ② 귀족정(약간 명에 의한 통치): 타락하면 과두정
- ③ 민주정(다수 시민에 의한 통치): 타락하면 중우정(衆愚政)

3) 민주정의 발달

- 입헌군주정과 주권의 개념이 발달하면서 민주정은 국민에게 주권을 부여한 모든 체제를 의미하게 됨.
- 민주정 하의 의사결정과정의 특징⁶⁾
 - ① 결정의 주체: '대략 모든 사람'
 - ② 결정의 방법: '토론과 비판과 타협'

4) 손병호, 『교회정치학 원론』 (그리인, 1991), 4. 백종국, 전게서, 58에서 재인용함.

5) 요한 칼빈 지음, 양낙홍 역, 『기독교강요 초판』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7), 356. 백종국, 전게서, 59에서 재인용함.

6) John R. Lucas, *Democracy and Participation* (Pelican, 1976), 10. 존 스토틀 지음, 정옥배 옮김, 『현대사 회론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IVP, 2005), 103-104에서 참조함.

- ③ 결정의 정신: '단 하나의 당파나 당 대신 모든 사람의 유익에 관심'
- '교회의 주권은 교인에게 있다'는 신념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정치는 민주정임
- 공화정과 민주정은 서로 대립되는 정체가 아님:
공화정의 경쟁자는 왕정
공화정에는 귀족적 공화정과 민주적 공화정이 있음

4) 교회가 민주주의를 택해야 하는 이유

① 오순절 성령 경험 후 초대교회의 모범:

-7인의 일꾼 선택: 행 6:1-6

열두 사도가 기준의 제시함: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모든 제자들(온 무리)이 그에 따라 7명 선정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임명함

-할례문제로 말미암은 신학적 난제의 해결: 행 15:1-35

사도와 장로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동역자 몇 사람이 함께 모여 대토론회를 가짐

베드로의 발언을 듣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음: 설득되었음을 의미함

바나바와 바울의 이방인사역보고

야고보의 신학적 해석과 제의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야고보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임

결론의 주체를 '성령과 우리'라고 표현함

▶ 즉 성령께서 대토론회의 과정에 함께 하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함

② 민주주의는 세속정치 형태 중 예수님의 교회 머리되심을 가장 잘 확보해줄 수 있음

라인홀드 니이버의 민주주의 이해: 기독교인간관에 부합함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불의를 향하는 인간의 성향은 민주주의를 필요한 것으로 만든다.⁷⁾

윈스턴 처칠의 하원 발언(1947.11.1);

실로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최악의 정부 형태라고들 합니다. 시시 때때로 시도해 본 모든 다른 형태의 정부를 빼면 말입니다.

III. 민주적 규약의 요체

교회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려면 민주적 규약이 필요하다. 교회의 형편에 따라 그 세부적 내용은 다양한 형태를 띌 수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한국교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모범(표준)규약을 만들었다. 하나는 사역자회의 형, 다른 하나는 당회 형이다. 아래 설명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됨을 미리 밝혀둔다.

1. 3대 원칙

첫째는 양심의 자유로서 모든 교인은 교단과 전통의 횡포에서 벗어나 신앙과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 둘째는 교회의 주권으로서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주권은 교인에게 있다. 셋째는 복음적 분업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이며 서로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 지위에 있어서는 동등하다. 우리가 흔히 만인제사장설이라고 부르는 개혁주의 원칙이다. 개혁주의 원칙은 민주주의 원칙이다.

7) Reinhold Niebuhr,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Nisbet, 1945), vi. 『빛의 자식들과 어둠의 자식들』 (문예출판사). 존 스토틀, 전게서, 76에서 재인용함.

2. 직분의 평등성 확립과 권력집중 방지를 위한 장치들

1) 사역자회의의 형

직분의 평등성 확립과 권력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목사/장로/집사의 3년 임기제를 도입하였다. 모두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의사결정을 민주화하기 위해 교회의 전통적인 회의체에 변화를 주었다. 개체교회의 최고결정기구 공동의회임을 분명히 했다. 노회와 총회를 상회로 부르지 않고 광대회의로 규정했다. 이는 목사가 장악하고 있는 노회와 총회의 교권주의를 배격하기 위함이다. 광대회의의 역할은 협의체로서 교리를 보존하며 권징의 조화를 이루며 규모의 경계를 달성하는 것으로 국한한다. 개교회는 권징과 관련해 3심제를 인정하고 광대회의의 권고가 있는 경우 재심해야 하며 교리나 연합사업에 대한 광대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공동의회 의장은 목사나 장로 중에서 선출함으로써 권한이 목사에게만 쏠리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마련했다. 회의 안건 중에서 의장 자신에 관한 회무를 다루게 될 경우 다수결로 임시회장을 선택해 회무를 진행한다. 임시 공동의회는 의장, 사역자회의 그리고 등록교인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린다. 권징은 장로의 권면, 장로회의 심의, 아래에서 곧 설명하게 될 사역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 의결로 결정된다. 그리고 모든 회의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과 다수결로 결정된다. 담임목사에게 안건을 채택해 가부를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던 관행을 철폐한 것이다.

또한 당회와 제직회를 없애고 당회와 제직회 일부를 통합한 사역자회의를 신설했다. 사역자회의는 교역자 모임인 목양회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목사, 장로회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장로 그리고 집사회장과 부서장들(모두 집사)로 구성된다. 공동의회 의장은 사역회의장이 될 수 없다. 이는 모두 목사나 장로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사역자회의의 의결에 따라 일반적으로 제직회에 해당하는, 즉 목양회, 장로회, 집사회 전원이 참여하는 확대사역자회의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목회활동은 전문적인 팀 사역 형태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적인 활동 분야에 따라 '○○담당목사'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담임목사가 없는 셈이다. 목사와 전도사는 목양회를 구성하여 목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의논한다. 목회자들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전형처럼 기도와 설교에 전념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행 6:5). 목양회장은 목사 중에서 1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목양회에서 정한다. 장로들은 장로회를 통해 교인들에 대한 심방과 권징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의논하는 것으로써 그 사명을 다한다. 장로회장은 장로 중 1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장로회에서 정한다.

2) 당회 형

사역자회의의 형과 다른 점만 언급하고자 한다. 사역자회의가 없고 그 역할을 당회가 감당한다. 당회는 목양회원과 장로회원 그리고 각 부 부장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당회와 다른 점은 각 부 부장이 집사라고 해도 당회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직회는 기존교회처럼 목양회원, 장로회원, 집사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되 기존교회와는 달리 당회장은 제직회의 의장을 겸임할 수 없게 했다. 이는 다 권한이 목사와 장로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3. 재정의 건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

예산의 부문별 균형 즉 전도/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한국교회가 그 동안 지나치게 교회건물건축과 교회 내 행사에 치중해 교회전체예산 중에 사회봉사비로 지출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3-8%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 한 것이다. 한국교회가 이 점에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화려한 교회건물, 예배참석자의 거대한 숫자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마틴 루터도 95개 조항의 반박문서에서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설교자들의 행상행위를 안다면 베드로 성당을 양들의 가죽과 살과 뼈로 건축하느니 차라리 성당을 불태워 재로 만들 것이라는 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한다고 말했다(50조). 교황은 자비(自費)로나 아니면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라도 감언이설에 넘어가 면죄부를 사는데 돈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갚아 줄 분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야한다고 던지시 도전하였다(51조). 이러한 내용들은 가난한 이웃은 외면한 채 화려한 교회건물 건축에 여념이 없는 한국교회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는 셈이다.

재정운영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출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의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재정부장이 시행하도록 했다. 단 예산 항목 변경 및 교회 총예산 기준 20% 미만의 초과지출은 공동의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재정부장이 시행하며 20%이상의 증액이 요청될 때에는 재정부가 이를 편성하고 사역자회의와 임시공동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는 교회재정이 담임목사와 몇몇 측근들의 담합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또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월 재정부는 사역자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회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교회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으로서 재산에 관한 결정권은 공동의회에 있으며 등기는 원칙적으로 교회명의로 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공동의회 의장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IV. 민주적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소양

1. 목회자의 소양

1) 자신/성도들과의 관계에서

• 사제주의 혹은 권위주의에 대한 미련과 그 유혹에서의 과감한 탈피:

- 김동호 목사의 목회전문가론⁸⁾:

- ① 만인제사장설은 만인목사설이 아니다: cf. 만인의사설의 위험성과 흡사함.
 - ② 목회는 유일한 성직이 아니라 전문직(즉 목회전문가)이다.
 - ③ 목회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사역:
 - i) 말씀의 선포;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예배 설교를 맡기지 않음. 부득이 한 경우 목사가 단 5분이라도 설교한 후 강연이나 간증을 부탁함
 - ii) 성례집례;
 - iii) 교회의 대표; 즉 목사만이 당회장이 되어야 함. 교회를 비로 비유하면 선주(주인)는 하나님, 선장은 목사.
- 주인의 일=큰 배를 운영하여 사업을 하고 그것을 통해 이익을 내는 것
선장의 일=그 주인이 목표로 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배를 목적지까지 무사히, 그리고 잘 운행하는 것

절대로 주인의 자리를 넘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임목사로서의 전문적인 역할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 교우들이 저를 동안교회의 목사로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동안교회의 담임목사 자리가 좋은 자리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98년 7월 12 설교 중에서).

우리 동안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동안교회의 담

8) 김동호, 『생사를 건 교회개혁』 (규장, 1999), 53-81.

임목사인 저를 목회의 전문가로 인정하고 동안교회의 선장으로 세워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 6년 반 동안 저를 좀더 자유롭게 믿고 맡겨주셨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동안교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저의 발목을 많이 잡았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일에 발목이 잡혀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면 저는 과감히 동안교회를 포기할 것입니다. 제게도 이제는 그와 같은 일에 발목을 잡혀가면서 써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98년 7월 19일 설교 중에서)

④ 대신 목회자의 전횡과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장치 필요함:

- i) 건강한 당회(당회의 기능: 목사가 하는 일에 대한 액셀레이터 기능 8-9회, 브레이크 기능 1-2회)
- ii) 위임목사 제도 폐지와 재신임 제도 도입
- iii) 정년 낮추고 원로목사제도 폐지
- iv) 목회의 전문화: 팀목회 또는 전문목회. 종합병원에 해당함

← 목회자는 목회전문가라는 정체성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

그러나 목회자가 의사 같은 의미에서의 전문가는 아님: 의사의 경우 기술적인 측면이 강함. 그러나 목사의 경우는 인격적인 영성과 인격적인 측면이 강함. 그렇기 때문에 목회의 영역에선 일반성도가 목사에게 못지 않거나 때론 더 탁월함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

목회직의 배타적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담임목사의 전횡과 독재를 막는 길은 요원함.

성도들의 영적·인격적 미숙함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 최선을 다해 설득하되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 신학적 정체성과 신앙적 양심에 관한 일이 아닌 한, 일을 좀 천천히 진행하더라도 교회의 민주적 운영을 포기하면 안 됨.

- 평소에 교회를 하나님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영성, 도덕적 설득력, 지도력을 함양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함.
- 목회자 자신이 건강해야 함: 많은 경우 과도한 권위주의는 목회자의 병든 마음에서 나옴

2) 다른 사역자(목회자/교회간사)와의 관계에서

- 다른 사역자와의 관계는 자신의 신학적, 윤리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임(아래와 같이).⁹⁾

① 다른 사역자를 경쟁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협력하는 지체로 볼 수 있어야 함

고전 3:6-9의 중요성: 바울의 자신과 아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

-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인식
- 심는 사람과 물주는 사람은 하나
- 목회자는 하나님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partner),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

② 서로 비교하지 않고 상대를 나보다 훌륭한 일꾼으로 볼 수 있어야 함(빌 2:3).

③ 일을 나누어 하는 지혜를 익혀야 함: 이드로 장인의 모세에 대한 조언(출 18:13-23):¹⁰⁾

특히 동역자를 선택할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도록 할 것.

- 자신이 선택하면 친밀성과 사역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내 동역자'란 인식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신 교회 편에서 '우리의 사역자'란 확신을 갖기 어려움.
- 선임 목회자가 옮길 때 다른 사역자도 이임하는 것은 옳지 않음(각각의 부르심을 인정)

9) William P. Tuck, 'A Theology for Healthy Church Staff Relations', *Review and Exposition* (winter 1981), 5-6; '동역하는 교회 사역자에 대한 자세는 자신의 신학을 반영한다'.

10) Trull and Carter, *Ministerial*, 125-129.

하지 않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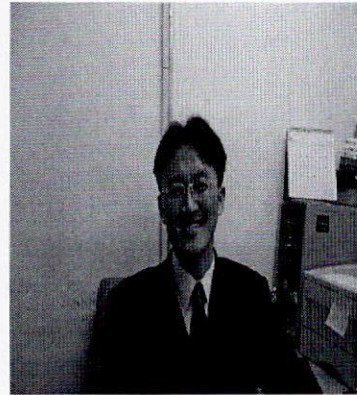
적절한 역할분담과 건강한 질서의 필요성:

지나친 권위주의적 위계질서는 금물

2) 비목회자 성도들의 소양

- ① 준비된 일군으로 세워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성령, 지혜, 믿음 충만. 사람들에게 칭찬 받음(행 6:3-5). 장로의 자격여건(딤후 3:2-7). 집사의 자격여건(딤후 3:8-13).
- ② 자발적 헌신: 신앙의 자유를 사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능력(갈 5:13).
- ③ 목회자와 장로의 가르침의 리더십에 대한 존중: 고전 12:28; 엡 4:11-12.
- ④ 민주적 토론 역량의 계발(행 15:6-29):
 - 자신의 주장을 간결하고 조리 있게 소통함.
 -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을 경청함.
 -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함.
 - 진리 혹은 정의에 직결된 것이 아닌 경우 중재/타협안을 추구함.
 - 견해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 때까지 인내.
 - 다수의 의견을 기꺼이 따름.
 - 소수의 의견을 존중함.

“건물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위한 첫 단추이다”



안해용목사(너머서교회 담임목사)

우리는 흔히 “저쪽 건물 뒤로 200미터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라든지 “교회가 낡아서 큰일이야” 라는 식으로 표현한다. 이런 말들의 저변에는 교회를 하나의 장소나 건물로 여긴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교회를 장소나 건물로 묘사하지 않았다.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원래 모인 우리나 민회(民會)등을 가리켰고, 기독교적인 용법에서는 ‘믿는 우리’, ‘회중’, ‘신앙 공동체’를 지칭하게 되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장소나 건물로 여길 때 나타나는 폐해는 두 가지 이다. 첫째, 우리가 모이는 장소나 건물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은연중에 성도들의 모임 장소 혹은 모이는 건물을 ‘거룩하다’고 여기고, 그러한 장소나 건물 중심의 신앙 형태를 발전시키게 된다. 우리의 예배 처소를 구약의 성전과 동일시하는 모습이 바로 구체적인 예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건물 중심적 신앙 형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그 곳을 모든 신앙심과 신앙 활동의 중심으로 삼는다. 우리의 거룩성은 그 장소와의 근접성 내지는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측정되게 된다. 예를 들어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리스도인을 상상해 보라. 그는 10시 40분쯤 예배당 근처 100미터까지 다가와 있다. 예배당 건물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는 거룩해진다. 그 건물에 들어가 주일예배를 드리고 여러 활동을 하는 동안 그는 거룩해진 기분을 느낀다. 그러다가 1시 이후에 예배당을 나서서 세상으로 진입하는 순간 그의 거룩성은 멀어지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예배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세상 적이 되고, 결국 세상 한가운데서 매우 세속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그가 유일하게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예배당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 안에서 활동에 몰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비성경적인 정신을 나타내는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고 장소나 건물로 간주할 때 야기되는 또 다른 폐해는 기독교 신앙의 비인격화이다. 우리는 ‘교회봉사’라는 말을 할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일정한 장소나 건물에 와서 자기가 맡은 책임-주일학교든 성가대든 초신자 양육이든-을 다하는 정도로 여긴다. 그러기에 특정 장소 안에서 하지 않는 일은 ‘교회봉사’ 즉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

가 사람들이고 봉사가 성김이라면 ‘교회봉사’라는 것은 마땅히 어떤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교회봉사’라는 영역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교회를 사람들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교회, ○○교회 하면 우리 머리에는 금방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라야 한다. 또 어떤 장소나 건물이든지-허름한 상가 2층이든 무슨 공원의 구석이든-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럼 교회란 무엇일까? “에클레시아”란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공식문서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 번째 편지(살전1:1)에서이다. 본래 이 말은 성서적 의미로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내용을 내포한 교회로 사용되기 전에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사용되어졌던 용어를 바울이 전용하였던 것이다.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는 군주를 선택하고, 정치적인 결정을 추진하거나 사법적 차원의 탄원을 듣기 위해 모인 시민전체의 회합을 지칭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런 유래를 거쳐 이 용어는 ‘집회’의 의미로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의미로 쓰이면서 신약교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낱말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은유적 표현으로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었다. 그리스도 안에(살전1:1), 그리스도와 함께(롬6:1-11), 그리스도와 연합하는(갈3:27), 그리스도의 지체(고전6:15) 등등의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러한 용어와 표현이 의미하는 교회의 본질은 주로 교회의 통일성과 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전12:27에 잘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많은 지체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음을 주장한다.(고전12:13) 따라서 지체는 하나이다. 하지만 모두가 동일한 획일적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통한 조화로운 통일성을 말하고 있다.

다양한 은사가 전체의 몸과 조화를 이루어 상호봉사를 함으로 일체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지체에게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이지, 몸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머리인 그리스도가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생명과 의지를 부여하며, 하나의 유기체로서 모든 지체를 연합시킨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개념을 더 확대하여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보아 현재 지상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존재론적으로 연결시키는 도식이다. 이것은 인간으로 구성된 지체를 그리스도의 신적인 몸과 동일시하는 관점으로 교회를 절대시하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것은 교회의 중심이 지체가 아닌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어야 하며, 지체는 머리에게서 생명력을 부여받아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봉사하는 구조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성서의 기자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일어난 모든 사건을 구약시대에 야훼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성취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 백성, 곧 독특한 임무와 주체성을 가진 새 공동체가 되었고, 예수도 추종자들은 새 이스라엘로 생각하도록 가르쳤다. 그는 의도적으로 열두 제자를 택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기 위해서였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고, 모세의 언약과 율법을 토대로 새 계명을 주었다.

이러한 의도는 예수 부활 사건과 성령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낡은 율법시대는 지나고,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 주었다. 이들은 새 시대에 적합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새 공동체가 곧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믿었다. 이 새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 이방인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곧 새 이스라엘이다. 새 이스라엘은 외면적 유대인이 아닌 내면적 유대인으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따라서 할례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가 된다.

교회가 참된 이스라엘, 곧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새로운 계약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콘첼만은 초대교회와 관련하여 교회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존재'로 인식하는 동시에 '세상 안의 존재'로 이해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는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부탁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거룩한 자들, 선택된 자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 즉 신앙에 의하여 결정되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될 때에 진정으로 새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바른 교회관을 확립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적으로 교회는 건물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더 높은 건물을 짓고 더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의 정치성을 확립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그런 의미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첫 단추가 건물 없는 교회를 지향함에 있다.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은 성서적인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교회의 정의를 사람으로 본다면 건물이 주인 되는 교회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회론적인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 조금은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건물을 소유하지 않으므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인간은 작은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더 큰 건물과 안락함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분명히 선언함으로 분명한 본질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건물 없는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병폐인 이원론적인 신앙에서 놓여 날 수 있다. 교회가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으려면 건물이 없기에 이런 의식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된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건물과 장소 안에 가두어 버린 신앙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교회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의식을 갖게 한다. 그러기에 건물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

건물이 없음을 통하여 사회로 나아감에 집중할 수 있다. 주님은 우리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우리들의 빛이 교회 안에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건물이 없기에 사회에 나아가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 효율적인 입장에서든 훨씬 알차게 진행될 수 있다. 본 교회는 고등학교 음악실을 이용하고 있다. 음악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 교회는 학교에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있고, 공간을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학생들의 장학금을 전달하므로

교회와 사회가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건물 없는 교회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나눔과 성김의 많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예산을 쓰기 때문이다. 그런데 건물을 소유하지 않으므로 교회의 많은 예산을 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저희 교회는 적은 인원으로 개척했지만,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선교와 구제를 위해 전체 예산의 30%에 이르는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건물에 자유로우면 봉사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다.

건물 없는 교회를 통하여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교회하면 십자가 종탑이 있고, 예배당 중앙에 십자가가 놓여 있고, 높은 천장에 들어가면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곳을 생각한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모이는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기에 다양한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찻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고, 가정집에서도 가정교회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학원에서도 예배를 드림으로 그곳이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러기에 다양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시도들이 많아 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는 일에 집중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있다. 건물에 자유로우면 교회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유럽의 화려한 성당들이 텅텅 비어가고 술집과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한국교회도 몇 십 년이 지나 유럽 교회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기에 본질을 찾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건물이 없는 교회로 나아갈 때 이루어 질 것이다. 사회와 소통하고, 건물에 사용되는 예산을 가지고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사용된다면 잃어버린 교회의 영향력이 회복될 것이다.